

# 전남도 지방분권 본격 추진 나섰다

### 충남·경북 이어 추진협 구성... 위원 20명 선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재정 확충 등 요구키로

전남도가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충남, 경북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번째로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동적 이양'에서 '적극적 요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최근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했으나 이후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에서 분권협의회

위원 후보를 추천 받아 다음달 초순 분권협의회 위원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출범식을 갖는 전남도 분권협의회는 자체적인 지방분권 기본계획 수립, 정책과제 발굴, 지방분권 관련 사업 평가 등을 맡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는 최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등 핵심과제 8개,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일반과제 10개,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 미래발전과제 2개 등 모두 20개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각

부처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차관회의에도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보고가 늦어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도 지지부진하면서 '지방분권' 로드맵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자체적인 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내 여론을 수렴한 뒤 장·중·단기 분권 요구 항목을 설정, 이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중앙부처에 요구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앙에서 결정할대로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필요한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 등에 요청하기 위해 분권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중앙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복지 공동체 밑거름”

### 윤 시장, 국비확보 공직자에 감사 글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글을 남겼다.

윤 시장은 지난 20일 내부 전산망에 남긴 글을 통해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으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신규 사업을 올해보다 3배나 많은 49건 1365억원이나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면서 “특히 열악한 예산 확보 조건에서도 내년도 국비를 올해보다 5.1% 늘어난 1조6086억원이나 확보한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실제 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건의한 신규 사업이 49건 1365억원이나 반영되는 성과를 내면서 행정경험이 없는 ‘시민시장’ 시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됐던 부실한 예산확보 우려 여론을 종



식시켰다. 광주시의 신규 사업 반영액은 2013년 22건 306억원, 2014년 37건 478억원에 불과했다.

윤 시장은 “이 같은 신규 사업 예산의 확보는 양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급 전 공직자들이 신발이 닳도록 중앙부처를 찾아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며 “앞으로 남은 예산확보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광주가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日 제조업 투자유치·전남 중기 수출확대 지원

### 이 지사 첫 해외출장 일본 방문

이낙연 전남지사가 취임 이후 첫 번째 해외 출장으로 일본을 선택했다. 일본 내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자연재해, 전력난, 엔화 강세 등의 국내 분위기를 감안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주력시장인 기업, 철강·석유화학 등 전남 주력산업과의 합작·협력 가능 업체 등을 투자유치 대상으로 꼽았다.

전남도는 22일 “이 지사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일본을 방문, 일본 제조기업의 투자유치와 전남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투자여향이 있는



기업들과 직접 구체적인 투자교섭을 받고, 이미 투자한 기업들의 확장·증설 투자를 권유할 예정이다. 또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열고 일본 바이어와 전남지역 기업 생산품의 수출계약을 체결한다.

이 지사는 과거 동아시아를 제외 시절 일본 특과원과 국회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수석부회장을 역임, 우리나라 정지인 중 대표적인 일본계로 꼽히고 있어 자체 일본 인맥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2일 동남전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지역 단위조합 조합장과 대의원 등 80여명이 참석,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의 공명선거 추진을 다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조합장 동시선거의 선거업무가 지난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됨에 따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이남오 과장을 초청해 선거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동남전남지역본부 제공>

## 한국형발사체 추진기관 시험설비 준공식

### 오늘 고흥 나로우주센터서 연소기 연소·터보펌프 설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0년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위해 진행 중인 ‘연소기 연소 시험설비’와 ‘터보펌프 시험설비’ 등 추진기관 시험설비 2종의 준공식을 23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위해 구축되는 추진기관 시험설비는 총 10종으로, 이 중 6종이 나로우주센터에 들어설 예정이다. 내년에는 3단엔진 연소 시험설비, 엔진 지상 연소 시험설비, 엔진 고공 연소 시험설비,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 등 4개가 구축된다.

이 가운데 연소기 연소 시험설비와 터보펌프 시험설비는 액체엔진 개발을 위해 가장 먼저 구축해야 하는 설비로, 한국형발사체의 액체엔진 구성품인 연소기, 가스발생기, 터보펌프의 성능을

검증하는 기능을 한다.

이들 설비에서 검증된 구성품으로 액체엔진을 조립한 뒤 내년 구축 예정인 엔진 시스템 시험설비에서 목표 성능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게 된다.

미래부와 항공우연은 “액체엔진 구성품을 시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주발사체용 액체엔진 개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향후 계획된 시험설비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필요한 경우 이들 시험설비를 국내 산업체와 연구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광주도시공사 새 사장에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

광주시는 22일 “신임 광주 도시공사 사장에 조용준(66) 조선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첫 공기업 임원 인사로, 신임 조 사장의 임기는 23일부터 3년이다.

조 사장은 조선대를 거쳐 청주대에서 건축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선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일본 도쿄대학 도시공학과 연구원, 교토대학 건축학과 초빙학자, 한국주거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조 사장은 특히 중앙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 신 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 위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중앙과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도시발전 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총괄 기획가로서의 경험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경찰 소환 사흘후 송광용 내정 靑, 고위직 인선 검증 또 구멍

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고등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송 전 수석은 청와대의 내정 발표가 나오기 사흘 전 이미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고위직 인선 사전검증에 또다시 구멍이 뚫린 셈이다.

22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7개 국공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을 임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1+3 유학 프로그램’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돼 있다.

문제는 이 대학들이 교육부장관의 인가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 학위가 나오지 않고, 정작 유학 시기가 왔을 때 외국 대학 측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연합뉴스

## 2014 우리지역 명산 ‘무등산의 사계숲 바로알기’

신광중학교·선우학교와 함께하는 숲길탐방

일시 | 2014년 9월 25일(목)  
장소 | 장흥 우드랜드 일원

주최 사단법인 광주학교  
주관 사단법인 광주학교 · 62 광주일보사 · 에너빌  
후원 복권위원회 · 산림청 · 녹색시업단  
문의 062.385-1417

※ 본 사업은 산림청 녹색사업단의 복권기금(녹색자금)의 지원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